

일반 은총과 개혁주의 신앙 고백

—미국 기독교 개혁파 교회가 채택한 3개 교리 조문을 중심으로—

홍 반 식*

<目 次>	
1 일반은총 도리(道理)의 역사적 배경	5 복음의 일반적 전파
2 개혁주의에서 보는 일반은총	6 인간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하심
3 Christian Reformed Church	7 未重生者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선행
3개 조문과 Hoeksema 목사	
4 우주적 일반은총	

일반은총(Common Grace)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식화된 단어와 같이 느껴진다. 일반은총이란 말의 어감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일반은총이란 말은 즉각적으로 특수은총(Special Grace, 혹은 Saving Grace)이라는 말과 관련을 갖게 한다.

특수은총 혹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함이고, 일반은총은 인간이 이 세상 생활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지는 못하지만,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문화적인 생활을 개발하고 조성하여 다른 동물보다 차원이 다른 생활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님으로 부터 신자, 불신자를 불문하고 주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 일반은총 도리(道理)의 역사적 배경

일반은총 사상이 학제으로 표현되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 Herman Bavinck¹⁾와 특히 Abraham Kuyper²⁾에 의해 주창되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이 교리를 체계있게 학제으로 논증한 선구자적 인물은 John Calvin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적지 않다.

H. Kuyper 박사는 미국 Calvin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이론신학자인데 화란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저작한 것이 *Calvin on Common Grace*이다³⁾. Kuyper 박사는 이

* 哲學・學長

1) De Algemeene. 1894

2) De Gemeene Gratie, 3Vols, 1902

3) Herman Kuyper, *Calvin on Common Grace*, 1928

논문에서 칼빈신학에 반영된 일반온총 사상을 세밀하게 취급하였다.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주석을 정밀하게 살피면서 칼빈선생이 취급한 일반온총 도리가 다양적(多樣的)이며 체계적인 것을 주석하였다.

Kuyper 박사는 다시 일반온총 교리를 칼빈주의 문화와 역사철학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확실을 전개하였다.

개혁신학자들은 이 Gratia Communis 교리를 통하여 기독교의 유일성(唯一性)과 특이성을 주장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성활터전으로써 주신 만물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⁴⁾

Kuyper 박사는 일반온총 역시 구원에 이르는 특수온총처럼 인간의 전적부패를 전제하고 이해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양자의 차이는 각양(各樣)이겠으나, 특수온총이 죄인에게 중생하고 得救의 축복을 입게 하는데 비하여 일반온총은 타락한 인간에게 죄성의 무제한적 발작을 제어하는 힘을 주고 人間으로 하여금 문화적 활동으로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생활에서 인권과 모든 사람의 복리를 증진시킬 힘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Kuyper 박사는 다시, 인간세계에 하나님의 일반온총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특수온총이 인간에게 적용되는 터전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달했다.

2 개혁주의에서 보는 일반온총

현대에 이르러 일반온총 도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의 열을 보이며 찬반의 의견 표시가 있는 것도 역시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20세기 초반에 일반온총 도리에 대하여 반대의 소리를 지른 사람들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적 요소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전적부패 도리를 역설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일반온총 도리를 내세울 때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부여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rminian 주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로 원하고 위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학설로 고착된다고 말하였다.

일반온총 도리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를 학술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미국의 Christian Reformed Church 목사로 있다가 후에 이 일반온총 도리문제로 새 교단을 창설한 Protestant Reformed Church, Rev. Herman Hoeksema 이다. 그는 1920년경 The Heidelberg Catechism의 주석을 출판하여, 그 저서를 통해서 화란계 개혁주의 교단이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일반온총 도리를 강하게 반박하였다. Hoeksema의 반대 역시 일반온총 도리론 만인특구를 제시하는 Arminian 주의와 동일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3 Christian Reformed Church 3개 조문과 Hoeksema 목사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미국 기독교 개혁파 교회는 그 교단내의 목사가 일반온총 도리를 반

4) Herman Bavinck, De Algemeene Genade, 1894

박하고 문서를 통하여 반기를 들자, 1924년 대회 Synod에서 일반은총에 대한 該교단의 주장은 밝히는 3개 조항의 신앙교리를 채택하였다. 이 3개 조문을 간략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향하여 은혜로운 태도를 가지신다.
- ②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서나 개인적 생활에서 범죄를 제어할 힘을 주신다.
- ③ 미중생자(未重生者) 즉 불신자로 하여금 사회생활에서 인간의 복리와 권리가 위해 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상 3조항이 1924년도 총회에서 채택되자 Herman Hoeksema는 3조항의 위반(A Triple Breach)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1924년 총회에서 취급한 일반은총에 대하여 반박하였다.

기독교 개혁파 종회가 위의 3개 조항을 채택함에 있어서 성경의 교훈을 따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교단이 채택하고 있던 신앙표준인 Heidelberg Catechism, Belgic Confession, Canons of Dort의 교훈과도 조화를 이루는 법위에서 채택한 것이다. 이 3개 조문은 각 조문마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의 내용과 성경의 규절들을 동반한다.

Hoeksema의 비평은 이 3개 조항이 기독교 개혁파 교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신앙고백문의 해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교백문이며 이미 채택된 신앙고백문의 增補조문이라고 말한다.⁵⁾

Hoeksema가 이 3개 조문을 개혁주의 신앙고백문의 增補 또는 별개의 신앙고백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3개 조문이 제시하는 내용이 개혁파 교회가 채택한 신앙고백문에 없는 것이며, 이 3개 조문에 인용된 신앙고백문의 부분은 해석이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명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근거는 이 3개 조문이 개혁주의 신앙고백문 Canons of Dort II, 5; III; IV, 5, 8, 9; Belgic Confession Art. 13, 36과 반대되는 가르침이라는 점이다.

Christian Reformed Church에서 채택한 제1조의 요지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피조물에 대하여 일반적 견지에서 생각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제1조문이 동반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표준은 The Synod of Dordrecht에서 채택한 Canons of Dort II, 5인데, 이 고백문 조항의 요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을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에서 주신 것으로 모든 나라와 인간의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진정되어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기독교 개혁파 교회에서는 Canons of Dort II, 5가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전할 때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1조문에 적용한 것이다.

Hoeksema는 Canons of Dort II, 5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만사람에게 차별없이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회개되어진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 신앙고백문이 제시하는 것은 다만 말씀의 전파를 의미하는 것 뿐이라고 Hoeksema는 주장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모든 자에게 전한다는 것 뿐이라고 한다.

5) Herman Hoeksema, A Triple Breach. p. p. 19, 22

그러나 Christian Reformed Church는 복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견지에서 그 조문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Canons of Dort Ⅲ; IV, 8, 9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을 모든 자에게 진정으로 전파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제2조문은 그 요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간섭하셔서 인간의 범죄행위의 무게한적 남발을 막아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인간이 군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만인간을 향한 은혜적 사행으로 말하였다. 제2조문이 열거한 신앙고백문 조문은 Belgic신경 제13조와 36조이다. Belgic Confession 제13조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마귀와 신자의 모든 원수들을 지배하시고 제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없이는 신자를 해롭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Belgic Confession 제36조의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혹종(或種)의 범칙과 정치적 제도로 지배되어 파멸(破滅)이 인간생활에 이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다.

Hoeksema는, 1924년도 총회에서 채택한 제2조문은 인용된 신앙고백문 조문의 해석이나 재확인이 아니고, 전혀 다른 사상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신앙고백문 제13조, 36조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범죄로써 부패해지는 사실을 제어하신다는 뜻을 말함이 아니고, 그저 인간이 세운 정치적 제도와 범칙을 통해서 인간사회에서 표면화되는 죄를 제어한다는 뜻이 나타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⁶⁾

Hoeksema의 부정은 근거가 약하다. Belgic 신조 제13조의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인들의 범죄 행위를 제어하사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요지는 분명 1924년도의 제2조문과 조화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생활 영역에서 법률과 정치적 제도로써 인간들의 악행을 제어하심으로 인간생활의 파멸을 방지하심은 하나님의 악한 계획의 산물이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전반적으로 상대하심에 있어서 은혜롭게 배우하시는 표현이다.

Hoeksema의 주장하는 바 세상국가의 입법·사법제도와 정치적 세력이 인간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적 산물이 아니라면 이 세상 인간이 국가와 사회생활의 질서와 복리를 위하여 세운 법적제도와 정치적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분리되는 2원론이 되고 말 것이다.

1924년 총회의 제3조문의 요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미증생의 불신자들이 인간사회 생활에 있어서 인간생활의 복리를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내용이다.

1924년도 총회가 제3조문과 함께 제시한 신앙고백문 조항은 Canons of Dort Ⅲ; IV, 5이며, Belgic 신경 36조이다. Canons of Dort Ⅲ; IV, 5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자연적인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본성의 작용을 통하여 인간견지에서 말할 수 있는 선과 악에 대하여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복리를 위하여 외형적인 질서적 세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Hoeksema는 이게 3조문에 대하여 비평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감화로써 불신자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이 세상 경찰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⁷⁾

6) A Triple Breach. p. p. 21—22

7) A Triple Breach. p. 24

이 비평 역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제도로써 사회적 또는 국가적 조직과 질서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서 분리하는 과정을 범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생활을 위한 선을 형하게 하는 일이 적지 않으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상교회생활과 복음전파를 위한 직접 간접의 선을 다양적으로 행하게 하신다. 국가로 하여금 교회의 재산과 권리와 보장하게 하여 주며, 공산주의와 같은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방지하여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갖게 해 주신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적 역할에서 신자만이 행위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증생(未重生)의 불신자들 중에서 다수의 관리, 군인, 경찰관 등이 하나님의 복적 달성을 위해서 사용된다.

4 우주적 일반은총(Universal Common Grace)

1924년 총회 제1조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함받은 신자에게만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 외에 모든 피조물을 향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요지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은혜를 베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존속하게 하시고 인간과 다른 동물 그리고 생물에게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시고 혀락하심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에 있어서 이 우주가 존속되고 모든 생물이 이 세상에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시편 145:9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를 밝히 보여준다. “여호와는 만유를 선택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써 해가 매일 동천에 뜨고 새는 노래하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삶을 갖게 된다. 시편 145:9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을 보여준다. 생물이나 모든 미물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신 보호로써 유지되고 있다.

신령기 28:12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역사 데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이 성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내린다는 뜻을 보여준다. 즉 하나님의 지으신 단물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으로 보존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단물을 자기의 선하신으로 보존하신다면 우주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신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다.

Hoeksema 역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⁸⁾ 그러나 Hoeksema의 일반은총 도의 부정설(否定說)은 하나님의 예정교리로 부터 시작된다. 즉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예정을 믿는 교리인 것이다. Hoeksema 역시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단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에게만 은혜가

8) H. Hoeksema, God's Goodness Always Particular, p. 106

되고 벼림받은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된다고 주장한다. 이 세상의 생활터전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신앙으로 생활할 때 그 생활터전은 은혜가 되지만 벼림받은 자가 이 세상의 생활터전에서 많은 둘질을 가지고 풍부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그 생활터전은 저주요 복이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에 쓰여져야 그것이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⁹⁾

택함받은 자와 벼림받은 자의 결단을 생각한다면 위에 말한 Hoeksema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성경은 일률적으로 인간을 선불선간에 중요하게 취급하며 하나님께서 선인류에게 어떤 면에서는 선을 보여주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증거를 제시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특이하게 취급하며 다른 동물보다 우대하시는 면이 드러난다.

요한복음 1:4-5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17: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생존하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라. 너희 시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 성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보다 특이하게 우대하시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시요, 이 빛은 인간의 생명이며, 이 빛은 특별히 인간들에게 비추인다.

요나서 4:10-11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방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차가 십 이만여명이요 유품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였다. 이 귀절에 가죽이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아끼시고 돌보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러한 성구들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즉 인간이 단체적 위치에서 다른 피조물보다 특이한 존재로서 대우하시면서 택함받은 자와 벼림받은 자의 구별을 나타내지 않고 대하신다. 즉 창조의 특수 그룹으로서의 인간인 것이다. 이 특수 그룹으로서의 인간은 공통점을 가지며 이 그룹이 받는 하나님의 선이 일반은총이다. 택자\비택자를 막론한 전인류의 일반성 또는 공통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여 다른 피조물보다 다르게 대우하시는데서 표현된다는 것이 일반은총 도리의 한 성격이다.

전인류의 일반성 또는 공통성에 대한 설명에 따라서 일반은총 도리에 대한 견해에 차이를 가져온다.

C. Van Til 박사도 전인간의 일반성 또는 공통성을 말한다. 그러나 Van Til 박사의 견해는 Christian Reformed Church안에서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Van Til 박사는 전인간의 일반성 또는 공통성을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택자와 비택자가 구별이 된 인간에 두지 않고 아직 존재하지 않은 인간에 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이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

9) God's Goodness Always Particular, p. 109

된 때에는 공통점이 없다. 전인간이 공통점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형상은 인간이 아직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다. 전인류가 아담에서 공통점을 가지는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다.¹⁰⁾

Van Til 박사의 입장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인간의 실존보다 앞선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Van Til 박사의 이 학설에 대하여 반기를 든 사람은 Christian Reformed Church의 James Daane 박사이다.

Daane 박사는 1954년 그의 저서 *Theology of Common Grace*를 통하여 Van Til 박사의 전 인간의 공통점은 아담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학설을 평하였다. Daane 박사는 존재하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가지는 공통성과 실제적 관련을 가질 수가 없으니 Van Til 박사가 주장하는 전인간의 공통성은 설 수 없다고 주장한다.¹¹⁾

Daane 박사의 저서는 당시 Christian Reformed Church의 지도자들과 교인들 사이에 비상한 관심의 적(的)이 되었다. 이들이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된 배후에는 Van Til 박사가 개혁주의 신학계의 거성(巨星)일 뿐 아니라 당시 Westminster 신학교는 매년 그 학교 경상비의 40% 가까이 되는 원조금을 Christian Reformed Church로부터 받고 있었던 까닭이다. 더러는 개혁주의 신학의 영도자적 인물인 Van Til을 공격하는 Daane 박사의 주장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일이 이렇게 친전되자 Van Til 박사는 다시 일반은총에 대한 논문 등을 발표하였으며 Christian Reformed 교파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Grand Rapids, Michigan 등지에서 일반은총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종전보다 좀 더 자세히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Van Til 박사의 일반은총에 대한 견해가 부분적으로 이해되어 Daane 박사의 주장과 같은 비평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Van Til 박사는 *Torch and Trumpet*지(誌)에 기고한 그의 논문 *Common Grace and Witness Bearing*에서 타락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선한 선물을 주셔서 인간으로서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한다. Van Til 박사는 다시 일반은총 문제의 핵심점인 요소를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극적으로 멸망에 버려두실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실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자답하기를 이 문제에 대한 첫째되고 기본되는 답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¹²⁾

Hoeksema 목사는 전인간의 공통성이 하나님의 주시는 일반은총과 관련된 것을 부인하는 근거로써 하나님의 예정을 말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물질적 또는 우주적 축복은 오직 택할만한 자에게만 축복이 되고 버림받은 자에게는 저주가 된다고 주장한다.¹³⁾

Hoeksema 목사의 이 주장은 신자와 불신자의 종국적 결과를 두고 생각할 때 일리가 있어 보

10) C. Van Til, *Common Grace*, p. 71

12) *Theology of Common Grace*, p. 39

12) *Common Grace and Witness Bearing*, *Torch and Trumpet*, Vol. 4. 70. 5. p.p. 5-7

13) *God's Grace Always Particular*, p. 189

인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선대하시는 사실을 광범위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편 145:9,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물을 베풀시는도다.”

신명기 28:12,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시편 104:28-29,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시편 104:13-14, “저가 그 뉴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록. 저가 가축을 위한 물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위의 귀절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향하여 선을 베풀시는 것을 나타낸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 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사실이 드러난다. 위 귀절들이 달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분명히 선한 것이고 축복에 속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성귀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택한 자에게만 베풀시는 구원의 은혜와는 다른 종류의 은혜이니 이것이 일반은총이다.

Herman Kuyper 박사는 칼빈의 Christian Institutes 제1권 2항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자기의 선으로써 유지하시며 특히 인간을 자비와 공의로써 다스리신다고 증거한다.¹⁴⁾

Kuyper 박사는 칼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 보다 특이한 보호로써 간섭하신다고 주장한 것을 소개한다. 칼빈이 주장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보호는 분명히 택한 신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며,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반적으로 취급하면서 자기의 특수한 피조물로 대우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5 복음의 일반적 전파

기독교 개혁파교회 1924년도 총회가 채택한 제1조문은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인간에게 진정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개혁주의 신앙고백 조문과 성귀들의 증거와 더불어 보여준다. 이 제1조문이 제시하는 신앙고백 조항은 Canons of Dort II, 5; III, IV, 8, 9, 그리고 바탕복음 5:44-45; 누가복음 6:35, 36; 사도행전 14:16-17; 디모데전서 4:10; 토마서 2:4; 시편 145:9; 에스겔 18:23; 33:11이다.

일반은총 도리에 대한 Hoeksema의 가장 강한 반대는 1924년 총회의 제1조문이 제시하는 모든 인간을 향한 복음의 진정된 전파이다. Hoeksema는 제1조문이 동반하는 신앙고백 조문 Canons of Dort II.5는 반인간을 위한 복음의 진정한 제시라는 사상이 없다는 점을 말한다. Dort의 정경 II.5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다만 복음을 모든 인간에게 차

14) H. Kuyper, Calvin on Common Grace, p. 5

별없이 전파한다는 사상을 보이는 것 뿐이라고 한다.

Hoeksema 목사의 이 비평은 복음의 전파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표현이라는 점을 무시한 쳐사이다. Canons of Dort II.5는 분명히 복음전파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Moreover, the promise of the gospel is that whosoever believes in Christ crucified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This promise, together with the command to repent and believe, ought to be declared and published to all nations and to all persons promiscuously and without distinction, to whom God out of His good pleasure sends the gospel.”

Hoeksema 목사는 Canons of Dort II.5에 favor 또는 grace라는 어귀가 없고 다만 모든 사람에게 분별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따라 Hoeksema 목사는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은혜”라는 말을 아무 관련을 갖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Canons of Dort II.5는 분명히 “out of His good pleasure”라는 말과 preaching이라는 말을 연결한다. 그렇다면 “His good pleasure”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비 또는 은혜를 뜻하는가? 그렇다면 Hoeksema의 비평은 정당하지 못하다.

Good pleasure of God, goodness of God, love of God, grace of God 등의 어귀는 동의어격(同意語的) 요소가 많다. Hoeksema 자신도 goodness of God이라는 어귀와 love of God 사이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범위에서는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시인한다.¹⁵⁾

칼빈도 goodness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을 향한 선하신 뜻과 관련지어 사용한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1권 2:1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우주를 그의 선하심으로 유지하시는데 특별히 인간을 공의와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자비로우신 인내로 방어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칼빈이 말하는 God's goodness 또는 good pleasure of God은 Canons of Dort II.5에서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는 근거로 표현된 good pleasure of God과 동일한 말이다.

Hoeksema 목사는 common grace 또는 general goodness의 도리는 성경의 증거와 개혁주의 신앙고백에 비추어 생각할 때 분명히 Arminian주의에서 말하는 베림받은 자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¹⁶⁾

Hoeksema 목사의 이 비평은 분명히 인간의 구원문제와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1924년 총회의 제1조문에는 구원을 주시는 특수은총(피택자만이 받는)을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 피조물에게 일반적으로 호의 또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을 말한다.

제1조문에서 복음의 일반적 제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15) H. Hoeksema, God's Goodness Always Particular, p. 78

16) God's Goodness Always Particular, p. 118

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Arminian주의에서 복음을 듣는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은 인간 스스로가 완성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하니 제1조문과는 '너두나 대조적이다. 미국 칼빈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요 교장이었던 Louis Berkhof씨와 Christian Reformed Church의 주간지 The Banner의 주필로 오랫동안 시무한 Henry J. Kuiper 목사 등이 1924년 총회의 3조문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일반은총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¹⁷⁾

여기에 대하여 Herman Hoeksema 목사는 Berkhof와 Kuiper가 일반은총 도리를 주장하는 것은 Calvin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복음전파가 전인간에게 미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인간 즉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미친다는 것으로서 Arminian주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평한다.¹⁸⁾

그러나 Henry J. Kuiper는 Arminian주의자가 아니며 구원을 피택자에게 주시는 특수은총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를 분명히 구별한다.¹⁹⁾

일반은총 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Kuiper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인용한다. 그 외에 뷔 6:35의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악자(惡者) 즉 불신자에게 선으로 대해서는 사실을 본받아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 이 이상 더 누추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시는 말씀이다.

칼빈선생은 에스겔 18:23 즉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죄의 길에서 너나 살 것을 원하신다는 말을 주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으로써 죄인을 구하시는 일의 두 방면의 성격을 보여준다. 첫째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인해 정해져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복음을 악자에게 전하게 하실 때는 악의로써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선의에서 악자가 참으로 회개하고 득구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복음을 제시하는 사실이다.²⁰⁾

마태복음 23:37은 범죄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증거한다. 즉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악자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이다. 칼빈은 마태복음 23:37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을 여시고 악자들을 안아 주시려는 은혜가 복음의 제시로써 표현된다고 증거하였다.²¹⁾

Hoeksema 목사는 1924년 총회 제1조문이 동반하는 Canons of Dort III; IV, 8, 9가 말하는 복음의 일반적 제시(the general offer of the gospel)는 비선택자나 악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17)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Henry J. Kuiper, *Three Points of Common Grace*.

18) H. Hoeksema, *Calvin, Berkhof, H. J. Kuiper*, pp. 35—36

19) H. J Kuiper, *Three Points of Common Grace*, p. 15

20) John Calvin, *Commentary on Ezekiel*, 18:23

21) J. Calvin, *Commentary on Matthew*, 23:37

주장한다. 그러나 *Canons of Dort* III, IV, 9는 복음의 진정한 제시와 그 제시가 악인에게 적용되어 악인에게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복음전파의 구국적 결파에 대하여 두 가지 소요를 구분지어 말한다. 즉 ① 복음의 제시는 순수하고 진정된 제시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써 되어지는 것이다. 특히 인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② 그러나 이 복음전파에 대한 불신의 태도는 그 책임이 인간편에 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이다.

위의 신앙고백조문은 복음의 제시가 악인에게 선한 결파를 맺지 못한다 할찌라도 이것은 복음이나 복음전도의 결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하기 때문임도 아닌 것을 말한다. 다만 결합과 부족은 복음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인간편에 있는 것이라고 증거한다.

그리고 同신앙고백조문은 마태복음 13장의 씨뿌리는 비유를 인용하면서 악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백자의 반열에서 구국적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지는 못한다 할찌라도 복음전파의 결파로써 잠정적인 신앙생활의 혜택을 입고 이 세상생활에서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복음의 일반적인 제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벼림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복음전파의 결과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깊으신 뜻에서 선의로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진정으로 제시하게 하시는 데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6 인간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제어하심

1924년 총회의 제2조문은 하나님께서 미증생(未產生)한 인간의 심령을 간섭하사 범죄행위의 무제한적 폭발을 제어하신다는 사실을 취급한다.

“총회는 성경의 증거와 신앙고백에 의하여 인간개인의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범죄행위를 제어하시는 일이 있음을 선포한다. Belgic 신경 제13조, 36조는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을 중생시킴이 없이 간섭하사 범죄행위의 무제한적 폭발을 제어하신으로 인간의 사회생활이 이 정도라도 가능하게 하신다.”

제2조문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자갈 떠이시사 사탄과 그의 왕국을 위한 무제한적 악의 도구가 되도록 버려 두시지 않고 간섭하심으로 인간사회의 질서가 이 정도라도 유지되어 하나님의 지상교회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형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제2조문은 Belgic 신경 제13조, 제36조 이외에 창세기 6:3; 시편 81:11-12; 사도행전 7:42; 루마서 1:24, 26, 28; 빠살로니가후서 2:6-7을 증거로 제시한다.

제2조문에 대한 Hoeksema 목사의 반대도, 제2조문이 동반하는 Belgic 신경 13조나 36조가 미증생자의 심령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사 범죄를 제어하신다는 사상을 보여 주지 않는데 1924년 총회는 신앙고백과 성경을 그릇되어 이해하고 인용한다는 것이다.²²⁾

Belgic Confession Art 13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자의 심령을 제어하신다는 어휘들이 들어 있다. 즉 “하나님께서 마귀와 신자의 모든 원수들을 적극적으로 제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22) Herman Hoeksema, A Triple Braech. p. 21

허락없이는 그들이 신자들을 해롭게 할 수 없다.”((He so restrains the devil and all our enemies that without his will and permission they cannot hurt us.)

인칭대명사 He, His는 분명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인을 제어하신다면 이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볼 수 있다.

Hoeksema 역시 하나님께서 마귀와 악마를 지배하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Belgic 신경 제13조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악자의 죄를 제어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Hoeksema는 하나님께서 악자를 지배하시는 것과 악자를 향한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분리한다. 이 주장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적 사역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오를 저지르는 일이다.

하나님의 통치적 사역은 성령의 사역으로써 표현되며 특히 인간의 심령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3위가 다 같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우주통치를 이루어 나가신다.

성3위께서 함께 일하시는 예는 성경에 나타나며 특히 천지창조 역할에 3위가 다 참여하는 것으로 말한다. (창세기 1:1-2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신은 물위에 운행하신다. 요한복음 1:1-3, 14에 성자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세상万物이 그로 인해서 모두 창조되었다.)

제2조문은 창세기 6:3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를 증거로 제시한다. “함께 한다”는 말은 재판한다, 다분다 등의 뜻이 있다.

Hoeksema 목사는 홍수전에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죄악을 제어한 일이 없고 도리어 사망과 화재로 가도록 벼려 두었으니 창세기 6:3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히브리어 「던」은 어떤 의미에서 “간섭한다”, 또는 “제어한다” 등의 뜻을 가질 수 있으며 제2조문이 창세기 6:3을 제시하는 것은 홍수전에 하나님의 신이 악인들의 마음을 제어하여 범죄를 저지 하였다는 것을 증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악한 인간들로 떠들어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던」은 다시 “지배한다”는 뜻이 있으니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를 악 그대로 벼여 두어 멸망에 이르게도 하시고 악인의 악을 제어하여 범죄를 저지로 하신다. 단일 하나님이 악인의 악을 제어하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완전히 지배하는 전능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악사(惡事)를 제어하시는 일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요셉을 대접으로 팔려가게 하였다. 이 사실은 창세기 45:7에 나타나는 요셉의 고백에서 증명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창세기 11:1-9에 나타나는 바벨탑이야기 역시 악자들의 범죄행위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

Hoeksema 목사의 제2조문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는 제2조문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교리와

상반되며 인간의 전적부패 혹은 전적타락교리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²³⁾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전대적 주권으로 예정하신 범위안에서 인간의 자유와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 빌립보 2:12-13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듯하다. 물론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과 범죄 문제에 있어서 인간편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히브리서 2:3; 4:11; 야고보서 2:18-21; 요한 1서 2:4, 29)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특별 은혜는 창세전에 예정된 피택자에게만 주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차별없이 전파된다.

제2조문이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말하는 바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다든가 좋은 사회를 전설할 힘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지배하시며 무제한의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제어하사 인간 사회가 현재 상태 이상 더 흉악한 꽃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제2조문; "God through the general operation of His Spirit, without renewing the heart, restrains sin in its unhindered breaking forth, as a result of which human society has remained possible."

인간은 시조가 타락때에 전적으로 부패해졌지만 그 심성에 혹종(或種)의 도덕심을 일반적으로 가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자일지라도 혹종의 신의식(sense of Deity)을 가진다. Herman Kuiper 박사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제1권 제3장을 해석하면서 "칼빈은 모든 인간의 심성에 어느정도의 신의식은 다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칼빈은 이 신의식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고 말한다."고 하였다.²⁴⁾

Henry J. Kuiper는 1924년도 총회 제2조문을 입증하기 위하여 니느웨城의 회개운동을 거론하였다. Kuiper 목사는 너느웨城의 주민이 중생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전파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들의 악행에서 돌아섰으며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실이라고 하였다. 니느웨城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행위를 제어하시는 명확한 예라고 Kuiper 목사는 증거한다.

성경학자 중 니느웨의 회개가 중생하고 구원일은 성도들의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니느웨 주민이 저희들의 악행을 중지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그들이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기록은 없으며, 다만 한때나마 그들의 신들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다는 뜻을 표시한 흔적은 있다고 말하였다.²⁵⁾

23) Herman Hoeksema, A Triple Breach, p. p. 55—57

24) Herman Kuiper, Calvin on Common Grace, p. 6

25) H. J. Kuiper, Three Points of Common Grace, p. 24

7 未重生者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선행

1924년 총회의 제3조문은 불신자가 사회생활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은종이라고 제시한다.

제3조문이 동반하는 신앙고백문 조항은 Canons of Dort Ⅱ ; V, 3; Ⅲ ; IV, 4 등이다.

Hoeksema 목사는 제3조문을 반대하고 未重生者는 어떠한 유(類)의 선을 막론하고 전적으로 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⁶⁾

Hoeksema 목사가 반대한 것은 불신자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과 인용된 신앙고백 조항이 未重生者의 선행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개혁주의 신앙고백은 불신자의 사회적 선행을 가로치지 않는가? Canons of Dort Ⅲ ; V, 4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도 그 심성에 비추이는 자연적 빛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며 이 세상의 사물과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질서에 대한 美德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이 자연적 식별력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하며 이 빛을 통하여 창된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한다.”

위의 신앙고백 조문은 벌죄한 인간일지라도 회미하나마 그 심령에 비추이는 자연적 광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혹종(或種)의 지식을 가지며 이 세상 사물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다.

칼빈도 불신철학가들의 작품에서 혹종의 신의식이 표현된다고 하였다.²⁷⁾

Canons of Dort Ⅲ ; IV, 3에 “incapable of saving good”이라는 어귀가 있다. 여기의 “saving good”이라는 말은 구원에 이르는 선은 아닐지라도 혹종의 선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924년 총회 제3조문은 saving good과 civic good에 대해 언급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saving good 이외에도 good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Hoeksema 목사는 absolute good 이외에 good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앙고백문은 saving good과 other kinds of good을 구분한다.

Hoeksama 목사의 반대를 논함에 있어서, C. Van Til 박사의 인간생활에 있어서의 선과 악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신자가 자기의 신앙심을 어기면서 범죄하는 것처럼 불신자도 자기의 심성에 있는 사탄적 원리를 어기면서 범죄한다. 신자가 자기 속에 있는 옛 사람때문에 자기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재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불신자에게 있는 신의식이 자기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알지 못하게 한다.”²⁸⁾

26) A Triple Breach, p. 68

27) John Calvin, Christian Institutes, Book 2, 2 : 18

28) Van Til, The Defence of Faith, p. 409

Van Til의 이 입장은 선자에게나 불선자에게나 모두 정도는 나를지언정 인간생활에 관한 선과 악이 개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Van Til 박사의 말은 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도에 완전히 조화되는 삶을 가질 수 없다는 것과 未重生者라고 해서 사탄처럼 전적으로 악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뜻을 나타낸다.

열왕기하 10:29-30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함의 집에 행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예후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었다.

누가복음 6:33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고 하였다. 이 성구는 예수님 자신이 불선자도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사실을 증거한다,